

영광, 전남 도로정비 평가 ‘대상’ 수상

군민 생명 재산 보호 · 안정 · 주행성 확보 노력

영광군은 전남도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도 도로정비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지방도 도로정비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법에 의한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31개 노선, 262km)의 포장도 및 배수시설 정비 등 전반적인 도로유지·보수를 평가했다.

영광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과 주행성을 확보하는 노력에 높은 평가를 받아 올해에는 ‘대상’을 수

상했다.

군은 겨울철 제설작업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연중 포트를 정비, 도로 노면청소, 과속방지턱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최우수기관 선정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함께 이뤄낸 노력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장성, 행안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사례 높이 평가

장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다.

올해는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마지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지침·관행 등의 개선 사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제출한 743건 가운데 장성군 포함 총 43건이 우수사례에 올랐다. 선정 결과는 지방규제혁신평가와 정부합동평가에 반

영된다.

3분기에 선정된 장성군 우수사례는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이다. 장성군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사업 지원 대상에서 ‘공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원 제외업종으로 지정되었다고 판단해 이를 삭제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규제 혁신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과감한 제도 개선으로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장성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재식 기자

장흥, 보훈단체 한마음 다짐대회 행사 개최

장흥군은 지난 22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제3회 장흥군 보훈단체 한마음 다짐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장흥군 보훈단체협의회(회장 선병민)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성 군수를 비롯한 왕윤채 의장, 광주지방보훈청 정선희 총무과장, 장흥군 보훈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마음 다짐대회는 회원 노래자랑, 각설이 축하공연, 위문품 전달 등 보훈단체 회원들의 단합과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선병민 장흥군보훈단체협의회장은 “올해 장흥군이 국비 497억 규모의 국립 ‘장흥 호국원’ 유치에 성공하고,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 사업이



었던 장흥군 보훈회관을 개관한 것에 대해 장흥군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보훈가족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훈 복지 증진 및 보훈 정신 확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함평, 지자체 최초 ‘종자의 날’ 지정 조례안 제정

함평군 국화품종 최초 등록일 8월 3일로 지정

이상익 군수 “종자산업 육성 발전 계기 마련”

함평군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종자의 날’을 8월 3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종자산업이 그린 바이오산업으로서 기후변화로부터의 식량안보를 대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실시됐으며 종자의 날인 8월 3일은 함평군 국화품종 최초 등록일이다.

종자산업은 이제 단순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식품, 의약품, 재료산업 등과 융복합이 가능한 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국가 기간산업으로의 중요성이 증가해 종자 강국들은 유전자원 확보와 지식재산권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5년간 1조 94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종자산업을 기술혁신을

통해 육성하고 1억 2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목표로 하는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으며 이 계획은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5대 전략은 ▲디지털 육종 등 신육종 기술 상용화 ▲경쟁력 있는 핵심종자 개발 집중 ▲3대 핵심인프라 구축 강화 ▲기업 성장·발전에 맞춘 정책 지원 ▲식량종자 공급개선 및 육묘산업 육성 등이다.

이와 더불어 함평군은 자체적으로 국화품종을 육종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나비번영 외 22개 신품종을 등

록하였고,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해 적극적인 신품종을 개발하여 국화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군은 자체 품종 육성을 통해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고, 타 지역보다 7~10일 먼저 축제를 개최하고자 시기에 맞는 현애국, 화단국, 분재국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함평군이 앞장서서 종자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발전 도모와 식량안보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

화순 ‘만원 임대주택’ 정부혁신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522개 혁신 사례 중 13개 기관 최종 선정



화순군은 지난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화순군의 ‘청년 및 신혼부부 전원 임대주택사업’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의 혁신 사례를 평가하는 대회로, 참가기관들이 제출한 사례들을 통해 정

부의 혁신적인 성과를 국민에게 소개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다.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에 크게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경진대회에는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가하여 총 533개의 혁신 사례가 제출되

었다. 최종 수상기관은 1차 전문가 심사, 2차 전 국민 온라인 투표, 3차 전문가와 국민참여단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특히 3차 평가에서는 최종 선발된 13개의 기관이 전문가와 국민참여단 앞에서 5분간의 사례발표를 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화순군이 전국의 지자체를 대표하여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구복규 화순군수는 “만 원 임대주택사업의 우수성이 이번 국무총리상 수상을 통해 입증되었다”며 “이 사업이 정부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청년에게는 희망과 꿈을 주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는 인구 유입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순=주용현 기자

영광, 내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위한 특성조사 실시

영광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4주간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1만5036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조사원들이 건축물대장, 특성조사표, 도면 등 공부상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현장에 출장하여 건물용도, 구조, 지붕, 층·개축 여부, 경과연수 등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특성조사를 위해 재무과장을 총괄로 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반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22일에는 읍·면 담당자와 조사원을 대상으로 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조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 및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와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건강보험료 산출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철저한 특성조사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높일 계획이다”며 “군민들은 특성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조사원 현장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아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

